

공동체 소식

예수 성심 성월 안내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또 예수 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가 10,27)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예수 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동안 매일미사 3쪽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매미사 전과 가정에서 바칩니다.

Peter's Pence 2차 헌금 안내

- 6월 30일(연중제13주일)
- 교황 주일이며 2차헌금 있습니다.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를 위해 “교황님을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를 바쳐주시시오.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 7월 7일(연중제14주일)
- 올해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남미 한인 선교사 모임(AMICAL)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대륙 한인 선교사 모임(KAM)에 후원됩니다.(게시판 참조)

주일학교 교리 방학

-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평협회 안내

- 3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미사 안내

- 7월 2일(화)~4일(목) 미사 없습니다.

7월 구역모임 안내

3구역 - 6일(토) 오후 7시 30분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8109 W 144th Ter. Overland Park KS 66223
2구역 - 12(금)일 오후 7시, 김태중 예레미아 가정 7729 Mohawk Dr. Prairie Village KS 66208
1구역 - 13일(토) 오후 7시 박태주 로마노 가정 12811 W. 106th St. Overland Park KS 66215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텔 (27가정)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55	220	502	44
차 주	62	216	165	459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요셉)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차 주	최은미(아녜스)	감영진(라파엘) 한준희(라파엘라)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하나) 김정훈(로베르도)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아), 강승호(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 주	1조: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차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은 3구역 청소담당입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하느님의 사랑의 힘과 부드러움을 더해 주시어,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기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루카 9, 59-60

제 1 독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16ㄴ.19-21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5,1.13-18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ㄴ-17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일치된 삶



얼마 전 과테말라 신부님들과 함께 1박 2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봉고차 뒷바퀴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흔들렸고 가까스로 차를 세워 내려 보니 타이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타이어 자체가 마치 굴껍질 벗겨지듯 외부 표면과 내부가 분리되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들 '불법 재생 타이어'의 문제라며 한탄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사용했던 타이어를 새롭게 외부 표면만 붙여서 만든 재생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로 인해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검증된 기술로 만든 재생 타이어는 한국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과테말라에서는 싼 가격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비 타이어로 바꾸고 돌아오는 길에 분리된 타이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분리된 신앙생활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삶은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될 때 결국 찢어진 타이어처럼 분리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과 일상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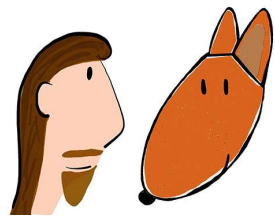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 삶은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으면서도 기존의 내가 가진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국 문제의 타이어처럼 우리의 삶도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쟁기를 잡는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그 쟁기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하느님 나라의 쟁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 열심

히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이고, 신앙과 일상의 일치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삶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것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분명 그 길의 끝에는 하느님 나라라는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온전한 집중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참일꾼으로 신앙생활의 일치를 이루며, 하느님 나라에 더더욱 다가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예수님. 원래 그런 건가 봐요.

사랑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사랑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사랑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순간도 쉴 수 없다는 것을 사랑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쉬운 거라 생각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루카 9,58)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사는 동안 행복했던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시련의 시간은 웬지 길게 느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주변인의 부고 소식은 조금은 나태했던 일상과 신앙에 잔잔한 겸손을 불러옵니다. 그때부터 잊고 있던 지인들의 안부와 가족의 건강에 마음이 쓰이고, 천년만년 사실 것 같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알면서도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통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휴무 날엔 집에서 지친 몸을 마음껏 뒹굴 거리고 싶지만 무엇을 자꾸만 해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와 세상 전반에 관한 토론으로 자꾸만 말을 걸어오시는 아버지가 마냥 귀찮아 후회할 투정을 했던 기억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좋은 곳에 가면 "모시고 가야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목이 메어 울컥한 마음에 "잘해야지! 진짜 잘해야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해야지!" 하면서도 참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저의 부족한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에 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루카복음 15장의 말씀, 돌아온 탕자처럼 부모님께 근심만 안겨드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어머니는 성모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4살 때 6.25를 겪으셨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을 다니시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굶지 않기 위해 꽃다운 12살에 남의 집 더부살이로 들어가 부엌일과 그 집의 6남매를 업어 키우셨습

어머니

니다. 챙기고 남은 누룽지를 먹으며,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다가 구교 집안의 아버지를 만나 입교하시고,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글을 배운 적 없는 어머니께서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읽고 싶으셔서 늦은 나이에 눈물을 흘리시며 악착같이 홀로 글을 깨우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화장실이 매우 좁았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코앞 벽에 뽀뽀뽀뽀한 글씨와 알 수 없는 맞춤법으로 빼곡하게 써진 성경 말씀이 매일 같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게 뭐냐고 투덜거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몽클한 마음이 듭니다. 글씨체와 맞춤법의 발전과 함께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저의 시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먹여 주시고자 했던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늘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굶은일을 도맡아 봉사하셨던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의 거울이 되어 하느님의 착실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공동번역성서 시편 18,29)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김윤희 안드레아